

2004년 7월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주5일 근무제¹⁾가 본격 실시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2005년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7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마지막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는 차원’에 국한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기업들은 늘어난 주말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개인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에 골몰하여왔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단순히 노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혁명차원에서 산업사회에서 여가사회의 이행으로 보아야 한다(김정운, 2005).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5일 근무제는 지난 200년간 인류사회를 지배해왔던 산업사회의 종말을 의미한다. 즉 산업사회가 생산을 위한 노동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라면 현재 여가사회는 여가를 매개로한 소비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5일 근무제는 노동을 통한 사회적 성공, 성취 지향적인 삶의 목적이 재미, 즐거움, 행복 등의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즉 산업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결핍을 해소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고자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일

을 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다. 그러나 결핍이 사라진다는 것은 빈곤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의미일 뿐 이것이 곧바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결핍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현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만족, 즐거움, 기쁨 등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웰빙(well-being)열풍은 이러한 경향의 연장이라고 보여 단순한 일회성 유행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이 점차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라이프스타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여가(leisure)’는 삶의 질을 다룰 때 빠지지 않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여가사회의 진전이 빨라질수록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가 주5일 근무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여전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노는 날을 늘려서 되겠느냐?’라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기반 노동중심 이데올로기와 탈산업사회적 여가중심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혼재되어 있음이 시사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가시대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로써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성역할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알아보려한다. 특히 여가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영향력이 큰 분야로써 남성은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여가를, 여성은 수동적이며 실내활동 기반의 여가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가사회의 이행은 남성들

1) 최근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대신 ‘주40시간 근무제’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주5일 근무제’가 우리에게 먼저 익숙해져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냥 주5일 근무제로 표기하기로 한다.

보다는 이전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던 여성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활동패턴 및 여가관련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보다 반세기 가까이 먼저 주5일 근무를 실시하여 여가사회가 정착된 독일의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여가활동의 특수성 및 보편성 그리고 여가활동패턴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문화적 비교대상으로써 독일은 문화적 전통이나 역사적 경험에서 한국과 매우 상이한 나라이지만, 이차대전 이후의 최근세사는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독일은 이차대전 이후 동서독의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부흥을 이룩하였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결국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선진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 재건에 힘쓰고 있을 때, 독일 역시 이차대전의 패전국이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경제부흥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독일 사회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과 여가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주5일근무제 시대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점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여가와 삶의 질

많은 연구자들은 여가활동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연구함으로써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피력하였다.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 첫째는 여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동기가 충족되어지고, 이로 인해 여가만족/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가동기’의 개념을 연구의 초창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이는 동일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여가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외현적인 특징에 의해 여가활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여가행동과 다른 행동을 구분하는 일차적인 차원은 바로 동기적 측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성영신, 고동우, 정준호, 1996, Mannell & Kleiber, 1997).

Neulinger(1981)는 여가의 조건으로서 ‘지각된 자유감’과 ‘내재적 동기 여부’에 및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여가 패러다임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여가에 있어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eci와 Ryan(1985)는 사람들은 종종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활동에 참여하려고 동기화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내재적 동기와 활동간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고동우(2002) 역시 지각된 자유감과 내재적 동기를 여가행동의 결정적 요소로 간주하고, 하나의 구체적인 활동을 여가인가 일인가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여가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여가동기가 여가연구의 초창기부터 주목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가연구는 여가활동과 여가태도, 여가만족도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여가행동의 심리적인 주체인 여가동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몇몇 연구들이 여가동

기를 주제로 다룸으로써 여가활동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서태양, 차석빈, 1996), 여가동기와 여가만족도 및 삶의 질간의 관계를 다루는 실증적 연구(예를 들면, 채선애, 한성열, 2002)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관점은 어떠한 활동에 의도를 갖지 않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느껴진다는 것이다(Diener, 1984).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두 번째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졌는데, 특정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게 되며, 이것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원형중(1994)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노인의 고독감은 생활만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고독감의 해소는 여가활동에서 오는 여가만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Flanagan(1978)는 능동적 여가가 수동적 여가보다 총체적인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신체적 각성을 유발시키는 여가활동은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Iso-Ahola, 1980). 유사한 맥락에서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TV시청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정체감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Shaw, Kleiber & Caldwell, 1995),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많이 참가할수록 학문적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여가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대학 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하였다(Ragheb & Mckinney, 1993). 국내의 연구에서도 문화활동과 스포츠 활동 및 야외활동 같은 동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대학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강경빈, 최용빈, 1999; 박영숙, 1999). 여가와

삶의 질에 관련된 이 두 견해를 종합해 보면,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공통적 견해를 보여왔다.

여성과 여가

남성과 여성의 여가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Parker, 1976). 이러한 경향은 일과 여가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여가의 개념이 ‘노동시간 이외의 남는 시간’이란 일의 부차적인 도구로서의 평가절하된 산업혁명 이후에 일이 남성의 영역이었듯이 여가 역시 이러한 남성들의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되었다. 이에 반해 여성의 여가는 그 중요성은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활동의 영역에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Robert, 1970). 대체로 여성들의 여가는 가정이라는 영역을 기반으로 자녀,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주방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전통적 여성의 성역할기반의 활동들이었다.

그러나 점차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권익이 신장되면서 성역할 불균형은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여가분야에서도 여성 여가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후반 들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 여성 여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기혼이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들 수 있다(예를 들면, 이승미, 1996; 정민영, 2001; 표영희, 김양례, 2001; Freysinger, 1994; Shaw, 1992 등).

우선 여성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스포츠 활동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반면, 취미/교양 부문에서는 남성들보다 강한 선호도를 보였다(김사현, 1997). 그러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여가유형 조사에서는 신체/스포츠 활동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남성에 비해 선호도가 낮을 뿐이지 실제로 여가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표영희, 김양례, 2001). 특히 이러한 활동은 30,40대 중반기에 있는 주부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의 반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년 남녀의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평일의 주된 여가유형으로는 남녀 모두에게서 ‘TV시청(남:55.7%, 여:43.9%)’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정민영, 2001). 그 뒤로 남성은 ‘스포츠활동(11.4%)’, ‘신문구독 및 독서(8.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가사돌봄(31.7%)’, ‘스포츠활동(5.4%)’, ‘쇼핑(5.4%)’ 등으로 나타났다. 휴일의 여가활동유형에서 역시 ‘TV시청’은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친구들과의 만남’, ‘가사돌봄’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사돌봄’, ‘종교활동’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비취업 여성이 취업여성보다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이현아, 이기영, 김외숙, 1999).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여가시간을 보면 남편의 여가시간은 153분(평일)과 444분(일요일)으로, 부인의 여가시간 140분(평일), 350분(일요일)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생활과 가사일을 병행이라는 과도한 부담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승미, 1996).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평등한 성역할이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서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결과(예를 들면, Shaw, 1985; Thrane, 2000)를 요약하며, 여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의무와 가족에 대한 헌신 등으로 남성에 비해 여가시간 및 활동의 제약을 더 크게 받으며, 이는 여성의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일관되는 경향이 있다. 즉 여가시간 면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이 시사된다.

여가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관찰되는데, 가족 여가는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유발시킨다. 남성들의 경우 생계유지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가족의 유지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적게 느끼며, 자녀들과 애정과 친밀함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가족여가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여전히 자녀와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해 주요한 책임으로 지각하며, 가족여가활동에서도 자녀를 보살피고, 가정경제를 꾸리는 고유의 일과 혼재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은 가족여가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에 앞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즐거움을 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Larson, Gillman & Rechards, 1997). 이처럼 가족여가는 그 속에 노동의 요소가 숨어있고,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여가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참여하는 순수한 여가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준여가(semi-leisure) 혹은 반여가(anti-leisure)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Dumazidier, 1974).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 남녀의 성역할 구분이 사라지는 것과 비교해, 여가의 영역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여가의 기능을 살펴보면, 여가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relaxation)의 기능,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반복적 일에 의한 일상의 권태로부터 기분을 전환해주는 기분전환(diversion)의 기능, 마지막으로 외부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자기개발(developing of the personality)의 기능이 그것이다(Dumazedier, 1967). 이러한 여가의 기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가는 현대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주5일 근무제다.

그러나 여가는 그 자체로서 삶의 질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TV시청이나 수면²⁾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는 적정 시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행할 때 여가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결국에는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시간동안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2) 33,000가구를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한 '휴일이나 주말의 여가활용법'에 대한 2004년도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결과 TV시청(26.1%)로 1위, 수면/휴식(16.1%)로 2위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가활동이 주된 가족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요구된다(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WBB101&IDT YPE=3 참조)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우선 필요한 작업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이다. 특히 다른 사회적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여가태도 및 기술 역시 성인기를 목전에 둔 대학생활동 동안에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영역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치열한 취업난 속에서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몇몇 안되는 최근 연구들은 주로 여가활동에 대한 기술적 연구(예를 들면, 강유원, 강동수, 김지희, 2002)나 여가의 참여 정도나 여가관련 변인과 주관적 안녕감(이광수, 2002), 생활만족도(박영숙, 2000), 정신건강(이복희, 2003) 등과의 관계성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대학생들의 여가행동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대학생들이 무엇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지 현상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이들 여가활동의 기저에 어떤 동기가 작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는지 등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와 여가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 및 여가태도, 동기, 만족도 등 여가행동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성찰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여가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여가생활을 준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우리보다 먼저 주5일제를 실시했으면서도 분단과 경제성장이라는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경로를

지내온 독일의 대학생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대학생 여가활동의 특수성 및 보편성 그리고 여가활동패턴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지막으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을 묻는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이들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³⁾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도 소재 한국대학생 368명(남:188, 여:180), 독일대학생 348명(남:168, 여:180)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2.9세였다.

측정도구 및 절차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비교연구하기 위해, 크게 세 부분으로 설문지를 구성되었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얻기 위해, 성별, 나이, 학년, 한달 용돈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을 3가지 적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들 여가활동에 대해 최근 1주일 동안 즐긴 시간과 만족도를 적도록 하였다. 마

여가동기

여가동기는 Beard & Ragheb(1983)가 최초로 개발하고, 원형중(1998)이 번안한 총 32문항의 척도(LMS: Leisure Motiv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 모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동기 척도 문항들의 전체적인 신뢰도(Cronbach α)는 .83이었으며, 하부 척도들의 신뢰도는 지적동기 .72, 유능동기 .71, 사회적동기 .78, 휴식동기, .78로 나타났다.

여가태도

여가태도에 대한 질문문항은 Ragheb과 Beard (1982)가 개발한 12문항으로 구성된 여가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며, 인지적 태도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60, 행동적 태도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는 .65이다. 정서적 태도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는 .69이다.

여가만족도

앞서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를 5점 척도(1점: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지는 우선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독일어 설문지는 앞선 한국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독일어 모두에 능통한 2인이 참여하였다. 우선 한 사람은 한국어 설문지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고, 다

3) 이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권 2호의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의 연구대상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중심적인 분석이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성차 특히 여자대학생들의 여가 및 삶의 질에 대한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앞선 논문의 후속 논문의 성격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문화에 따른 여가문화의 전반적인 양상의 차이는 앞선 논문을 참조 바란다.

른 한사람은 번역된 독일어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의 오류여부를 점검하였다.

자료분석

여가활동의 유형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을 수집한 후, 여가 활동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는 바, 조깅, 헬스와 같은 ‘스포츠와 건강분야’, 사진찍기, 악기연주 등과 같은 ‘취미와 교양분야’, 영화감상, 연극감상과 같은 ‘관람 및 감상분야’, 친구만나기, 이성교제와 같은 ‘사교분야’, 드라이브, 여행과 같은 ‘관광 및 여행 분야’, 마지막으로 바둑, 당구, 화투와 같은 ‘놀이와 오락 분야’가 그것이다. 한국과 독일 대학생간 여가활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기술한 모든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교차분할분석과 카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가활동, 여가동기, 여가태도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검증: 이들 변인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남녀 대학생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연령, 학기, 용돈과의상관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가외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가외변인을 공변량으로 삼아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한국과 독일 남녀대학생간 비교

성차에 따른 한국과 독일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유형을 살펴보고, 두 국가 간에 여가활동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우선, 두 국가 여자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여자대학생들은 주로 관람 및 감상(33.6%), 취미 및 교양(26.3%), 놀이 및 오락(14.4%), 스포츠 및 건강(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일 여자 대학생들은 취미 및 교양이 31.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포츠 및 건강(26.4%), 관람 및 감상(18.6%), 사교(15.5%) 등의 순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5.323$, $p<.001$). 구체적으로, 한국 여자 대학생들은 독일 여자대학생들에 비해 컴퓨터게임, 채팅, 웹서핑과 같은 인터넷 관련 활동, 당구/포켓볼, 화투와 같은 ‘놀이 및 오락’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14.4% vs 독일: 3.6%). 그리고 영화·연극관람, TV/비디오 시청 등과 같은 ‘관람 및 감상’ 활동 역시 독일대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33.6% vs 독일: 18.6%). 이에 반해, 독일 대학생들은 한국대학생들에 비해 조깅, 헬스, 수영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스포츠 활동(한국: 10.9% vs 독일: 26.4%)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만나기, 이성교제와 같은 사교활동(한국: 10.4% vs 독일: 15.5%)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남자 대학생 집단과 비교해 보기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두 국가 남자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국 남자대학생들은 놀이 및 오락(25.5%), 스포츠 및 건강(22.8%), 관람 및 감상(21.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독일 남자

표 1. 한국과 독일 여자 대학생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유형	한국(%)	독일(%)	전체(%)
1. 스포츠·건강	52(10.9)	116(26.4)	168(18.3)
2. 취미·교양	126(26.3)	140(31.8)	266(28.9)
3. 관람·감상	161(33.6)	82(18.6)	243(26.4)
4. 사고	50(10.4)	98(15.5)	118(12.8)
5. 관광·여행	21(4.4)	18(4.1)	39(4.2)
6. 놀이·오락	69(14.4)	16(3.6)	85(9.2)
전체	479(100)	440(100)	919(100)

대학생들은 스포츠 및 건강(32.4%), 취미 및 교양(21.9%), 관람 및 감상(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47.694, p<.001$). 이들의 구체적인 여가활동의 차이를 보면, 우선 한국 남자 대학생들은 독일 남자 대학생들보다 놀이 및 오락활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독일 남자 대학생들은 한국 남자대학생들보다 스포츠 및 건강 활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1과 표 2를 종합해 보면, 한국 여자대학생들은 한국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관람 및 감상 활동과 취미 및 교양 활동의 빈도가 높았

던 반면 스포츠 및 건강, 놀이 및 오락 활동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 빈도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독일 여자대학생들에 비해 관람 및 감상활동과 놀이 및 오락 활동의 빈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의 특성을 보였다.

한국과 독일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

표 3은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용돈, 나이, 학년

표 2. 한국과 독일 남자 대학생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유형	한국(%)	독일(%)	전체(%)
1. 스포츠·건강	117(22.8)	129(32.4)	246(27.0)
2. 취미·교양	88(17.2)	87(21.9)	175(19.2)
3. 관람·감상	109(21.2)	63(15.8)	172(18.9)
4. 사고	43(8.4)	60(15.1)	103(11.3)
5. 관광·여행	25(4.9)	15(3.8)	40(4.4)
6. 놀이·오락	131(25.5)	44(11.1)	175(19.2)
전체	398(100)	513(100)	911(100)

을 공변량으로 삼아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여가생활 만족도 평균은 3.95로써 한국 여자 대학생의 만족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여가활동

표 3.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활동만족도

		여가활동유형	여가만족도 평균(표준편차)	자유도	F
여성	한국	1. 스포츠·건강	4.04(.87)	5	2.811**
		2. 취미·교양	3.80(1.00)		
		3. 관람·감상	3.99(.88)		
		4. 사교	4.27(.78)		
		5. 관광·여행	4.33(.91)		
		6. 놀이·오락	3.67(.90)		
	독일	1. 스포츠·건강	4.05(1.02)	5	.328
		2. 취미·교양	3.94(1.02)		
		3. 관람·감상	3.89(.94)		
		4. 사교	3.98(1.07)		
		5. 관광·여행	3.93(1.31)		
		6. 놀이·오락	3.82(.92)		
남성	한국	1. 스포츠·건강	4.00(.87)	5	2.842**
		2. 취미·교양	3.84(1.00)		
		3. 관람·감상	3.88(.88)		
		4. 사교	3.83(.78)		
		5. 관광·여행	4.24(.91)		
		6. 놀이·오락	3.64(.90)		
	독일	1. 스포츠·건강	4.16(.96)	5	.524
		2. 취미·교양	4.09(.98)		
		3. 관람·감상	3.89(.95)		
		4. 사교	4.05(1.02)		
		5. 관광·여행	3.85(1.46)		
		6. 놀이·오락	3.85(.91)		

주. * $p < .05$, ** $p < .01$ *** $p < .001$

동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2.811$ $p < .01$)를 보인 반면, 독일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과 그에 따른 만족도의 순서를 보면, 관광 및 여행활동이 5점 척도상에서 평균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4.27), 스포츠 및 건강활동(4.04)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반면, 놀이 및 오락 활동(3.67)과 취미 및 교양활동(3.80)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독일 여자대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관광 및 여행 활동이 4.00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및 건강(3.90), 관람 감상(3.88), 사교활동(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의 결과의 결부시켜 해석해보면, 한국 여자대학생들은 ‘관광과 여행’ 활동, ‘사교’ 활동은 그 빈도가 적다 하더라도 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컴퓨터 게임, 채팅, 웹서핑과 같은 인터넷 관련 활동, 당구/포켓볼, 화투와 같은 ‘놀이 및 오락’ 활동 및 사진찍기나 악기연주 등의 취미, 교양은 가장 빈번한 여가활동 중 2, 3순위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다지 만족스러운 활동으로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남자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전체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 남자 대학생들의 여가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6이었던 반면 독일 남자 대학생은 4.13으로 독일 남자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여가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활동유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F=2.842$ $p < .01$)를 보였으나, 독일 남자 대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 남자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순서를 살펴보면, 관광 및 여행활동이 5점 만점에 평균 4.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놀이 및 오락은 3.6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독일 남자 대학생들은 스포츠 및 건강 활동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한국 남자대학생들에게는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관광 및 여행활동이 놀이 및 오락활동과 더불어 공동으로 3.8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앞의 표2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남자 대학생들이 가장 빈번한 여가활동으로 나타난 놀이 및 오락활동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독일 남자 대학생들은 스포츠 및 건강, 취미 및 교양 등 상위 활동 유형의 만족도가 모두 높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과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남녀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특이하게 ‘사교활동’의 경우는 여학생들에게서 높은 만족을 보인 반면 남학생들에게는 6가지 여가활동 유형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만족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를 활용하여 행해지는 남녀 간의 데이트가 똑같은 만족을 주기 보다는 여성 쪽에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이 시사된다.

한국과 독일대학생의 여가동기

한국과 독일 여자 대학생 간에 여가동기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본 결과(표 4), 유능동기 유의미한 차이($t=-3.410$, $p < .01$)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독일 여자 대학

생들의 동기 패턴은 유사하였는데, 가장 강한 동기는 ‘휴식 동기’였고, 그 다음으로 ‘지적 동기’가 주요한 여가동기로 조사되었다. 여가 동기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 여자 대학생(평균 2.98)은 한국대학생(평균 2.69)들에 비해 ‘신체적인 기량과 능력을 개선하고 싶어서’, ‘나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와 같이 자신의 능력을 개선하거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동기에 근거해 더욱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싶어서’ 등의 사회적 동기 역시 독일 여자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대학생들은 독일대학생들에 비해 ‘여유를 찾고 싶어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와 같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일에 대한 에너지를 얻고, 기분전환을 하고자 하는 휴식동기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내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등 지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들의 여가동기를 살펴보면, 한국과 독일 남자 대학생 모두 ‘휴식 동기’, ‘유능 동기’,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순으로

여가 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기의 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동기는 ‘휴식 동기’로 한국 남자 대학생들이 독일 남자 대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t=2.541, p<.05$).

한국의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 간의 동기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휴식 동기(4.07: 3.87)’와 ‘지적 동기(3.21: 3.04)’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 ‘유능 동기’와 ‘사회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1, 표 3과 연합해 해석해 본다면, 여가를 통해 여유나 안정 등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한국 여자 대학생들은 극장을 찾아가지만 그 만족도는 낮은 반면, 독일의 여자 대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운동을 하며 여유나 안정은 얻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과 독일대학생의 여가태도

한국과 독일 여자 대학생 간에 여가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우선 한국 여자대학생들은 독

표 4. 여가동기에 대한 한국과 독일 대학생간 차이검증

동기유형	여 성		t	남 성		t
	한국: M(SD)	독일: M(SD)		한국: M(SD)	독일: M(SD)	
지적 동기	3.21(.79)	3.07(.86)	1.485	3.04 (.80)	3.01 (.87)	.197
유능 동기	2.69(.84)	2.98(.79)	-3.410**	3.05 (.87)	3.07 (.83)	-.280
사회적 동기	2.72 (.90)	2.83 (.87)	-1.311	2.85 (.86)	2.97 (.87)	-.805
휴식 동기	4.07 (.71)	4.05 (.73)	.300	3.87 (.75)	3.69 (.87)	2.541*

주. * $p<.05$, ** $p<.01$

표 5. 한국과 독일대학생의 여가태도에 대한 차이검증

여가태도	여 성		t	남 성		t
	한국: M(SD)	독일: M(SD)		한국: M(SD)	독일: M(SD)	
인지적 요인	4.29 (.59)	3.80 (.69)	7.360***	4.29 (.70)	3.55 (.94)	8.428***
행동적 요인	3.02 (.55)	2.95 (.52)	1.450	3.06 (.61)	3.13 (.70)	-.997
정서적 요인	4.23 (.54)	3.95 (.63)	4.573***	4.10 (.74)	3.67 (.82)	5.213***

주. * $p < .05$, ** $p < .01$

일 여자대학생들보다 여가태도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놀이 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다’, 한국 여자대학생들에게서 ‘인간은 생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여가를 찾아야 한다’ 등의 ‘인지적 요인’의 점수($t=7.360, p<.0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생활 속에서 사는 기쁨을 느낀다’, ‘여가 활동을 즐긴 후에는 기분이 상쾌하다’ 등 정서적 요인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t=4.573,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가에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휴가를 얻는데 주변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등의 행동적 요인 역시 한국 여자대학생들이 독일 여자대학생들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남자 대학생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인지적 요인($t=8.428, p<.001$)과 정서적 요인($t=5.213, p<.001$)에서 한국 남자 대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행동적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독일 남자 대학생들이 한국 남자 대학생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국 남녀 대학생들의 여가태도를 비교해 보면, 정서적 요인에서 남자 대학생(4.10)들보다 여자대학생(4.23)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바, 이는 여가를 통한 정서경험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더 긍정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시사되며, 이는 앞서 여가생활 만족도에서 여학생들의 만족도(3.92)가 남학생들의 만족도(3.86)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여가태도에서 여가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반응이 독일 여자대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요약할 수 있다.

논 의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우리사회에 도입된 주5일 근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가사회로의 목전에 서있는 지금 여전히 여가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가와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 중 성역할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여가사회로의 진전에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가 출발하였다. 특히 여가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영향력이 큰 분야로써 남성은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여가를 여성은 수동적이고 실내 활

동 기반의 여가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는 비대칭적 여가문화가 전통적인 여가문화였다. 앞으로 진행되는 여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여가활동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활동 패턴 및 여가관련 변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성 여가활동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우리보다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독일 대학생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의 특수성과 보편성 및 여가활동 패턴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자 대학생들은 한국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관람 및 감상’과 ‘취미 및 교양’의 영역이 주된 여가활동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독일 여자대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스포츠 및 건강’에서 낮은 활동 빈도를 보인 반면, ‘놀이 및 오락’ 활동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 빈도를 보였다.

둘째, 한국의 여자 대학생들은 ‘관광 및 여행’과 ‘사교’영역 순으로 높은 만족을 보인 반면, ‘놀이 및 오락’과 ‘취미 및 교양’ 영역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자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유발하지 못한다고 추론된다. 이런 결과는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 등 일상적인 놀이 및 오락의 영역은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즐기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행해지는 강요된 여가(enforced leisure)일 가능성이 시사된다(Parker, 1976). 강요된 여가는 삶의 질 제고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은 ‘지겨움’과 ‘권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체계적인 여가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은 여가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서 여가의 증가가 단순히 삶의 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여가교육은 공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의 성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여가활동을 찾고 즐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더 높다고 사료된다.

셋째, 한국 여자 대학생들의 여가 동기는 ‘휴식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독일 여자 대학생 뿐 아니라 한국-독일 남자 대학생들에게서도 같이 나타난 현상이다. 뒤마지디에(Dumazedier, 1967)에 의하면, 여가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relaxation)의 기능,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반복적 일에 의한 일상의 권태로부터 기분을 전환해주는 기분전환(diversion)의 기능, 마지막으로 외부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자기개발(developing of the personality)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현재 한국 및 독일의 대학생들은 사회 및 학교생활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푸는 ‘휴식’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휴식은 부족한 원기를 채워준다는 점, 즉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여가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휴식’의 기능이 충족된 이후의 여가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가시대에는 이러한 휴식이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시사점은 우리보다 먼저 주5일제를 정착시킨 독일의 여자 대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계발과 직결되는 ‘유능동기’가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휴식 이외에 여가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들의 여가태도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의 ‘인지적 요인’과 여가를 통해 긍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정서적 요인’이 독일 여자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 남학생들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실행력을 보여주는 ‘행동적 요인’은 낮게 나타난 바, 이는 여가교육에서 여학생들에게 여가에 대한 인식이나 효과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원하는 여가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함이 시사된다.

본 연구는 여가 및 여가관련 변인에 대해 수행한 국내 연구들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교문화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문화와의 비교작업을 통해 한국의 여가에 대한 현 상황을 보다 명료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의 여가특성 및 여가문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여가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조사한 잠정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여가현상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심층 분석이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료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과 만족도, 동기 및 태도에 대한 변화 및 변화의 원인이 면밀하게 조사되는 한편 문화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더 세밀한 추후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경빈, 최용민 (1999).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대학만족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0(4), 1-12.
- 강유원, 강동수, 김지희 (2002). 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0(1), 35-52.
- 고동우 (2002). 여가동기, 여가체험 및 관광행동: 이중추동 모형과 이중톨로 여가체험 모형.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115-149.
- 김정운 (2005). 여가경영학: ‘일과 삶의 조화 (Work-Life Balance)’ 정책.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 박영숙 (1999). 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7, 71-82.
- 성영신, 고동우, 정준호 (1996). 여가의 심리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17-40.
- 서태양, 차석빈 (1999). 여가론. 서울:대왕사.
- 원형중 (1994). 여가활동 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90-104.
- 원형중 (1998).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요인에 관한 기본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369-386.
- 이광수 (2002).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0(2), 79-90.

- 이복희 (2003). 여자대학생의 여가만족, 여가태도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5), 401-409.
- 이승미 (1996).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 이현아, 이기영, 김외숙 (1999).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37-156.
- 정민영 (2001). 중년남녀의 여가활동 유형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 227-240.
- 채선애, 한성열 (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7-31.
- 표영희, 김양례 (2001). 도시 주부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제약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2), 457-467.
- Beard, J., & Ragheb, M.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0.
- Beard, J., & Ragheb, M. (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 Diener, E. (198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London, Collier-Macmillan.
- Dumazedier, J. (1974).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Collier-Macmillan.
- Flanagan, J. C. (1978). 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mericans Psychology*, 33, 138-147.
- Freysinger, V. J. (1994). Leisure with children and parental satisfaction: Further evidence of a sex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adult roles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212-226.
- Iso-Ahola, S. E.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A: W. C. Brown.
- Mannell, R. C., & Kieber, D. A. (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Ventruer Publishing, Inc.
- Larson, R. W., Gillman, S. A., & Richards, M. H. (1997). Divergent experiences of family leisure: fathers,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78-97.
- Neulinger, J.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Parker, S. (1976). *현대사회와 여가(The Sociology of Leisure)*. 이연택, 민창기 역, 1995). George Allen & Unwin Ltd.
- Ragheb, M., & Beard, J. (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2), 155-167.
- Ragheb, M. G., & Mckinney, J. (1993). Campus recreation and perceived academic str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5-10.
- Robert, K. (1970). *Leisure*. London: Longman.
- Shaw, S. M. (1985). Gender and leisur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 266-282.
- Shaw, S. M. (1992). Dereifying family leisure: An

- examination of women's and men's everyday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family time. *Leisure Sciences*, 14(3), 271-286.
- Shaw, S. M., Kleiber, D. A., & Caldwell, L. L. (1995). Leisure and identity formation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 preliminary exa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3), 245-263.
- Thrane, C. (2000). Men, women, and leisure time: Scandinavian evidence of gender inequality. *Leisure Sciences*, 2, 109-122.

